

“LNG발전·집단에너지 수익성 개선 방안 골제시”

박성택 산업부 장관, ‘에너지전환 위해선 시장제도 개선 필요’ 강조



정부가 친환경 분산형 전원 중 하나인 LNG발전과 집단에너지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사진)은 12일 서울과학기술대(서울과학기술대)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에 참석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하드웨어를 정비했지만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전력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환경비용 급전 순위 반영과 발전연료 세제 조정을 통해 석탄과 LNG간의 비용격차를 줄이고, 용량요금(CP) 보상 확대와 LNG발전비용 현실화 등의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 LNG발전 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고민 중이며, 시기의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부터 개선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과 LNG간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에서 사용하는 오염물질 제거 약품 사용과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비용도 환경비용에 포함

할 계획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유연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것과 별도로 현재 다른 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LNG 개별소비세 인하도 검토 중이며 5월 중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LNG발전 증가로 인한 가스수급과 가스지도입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을 원래는 지난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8차 수급계획이 늦어지면서 올 2월까지로는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가스 지도입 물량이 확정돼야 가스공사가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가스지도입 부분도 그때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민간의 가스지도입을 통해 발전경쟁에 나름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공성도 매우 중요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스지도입 양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신규수요관리 수단인 자

가용 태양광보급과 국민DR시장 확대를 위해 중개사업자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1월 중에 DR제도 개선책도 내놓겠다”며 “전기요금 체계도 올해 안에 요금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조정하고, 내년에 계시별요금제와 실시간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수요관리는 올해 수립하게 될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및 석탄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만을 놓고 설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실제 설비의 폐지 시기는 원자력안전법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노후 석탄발전도 이번 계획에는 폐지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리트릿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30~40년 가동하고 바로 폐지할지도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석 기자 azar76@



지난해 2월 1일 1호기, 3월 28일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파주에너지서비스의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전경.

아세아시멘트, 세계 첫 9.3MWh 규모 ESS 구축

제철공장에 설치...연간 12억원 전기요금 감축 기대

시멘트 업계 최초로 아세아시멘트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최근 제철 공장에 9.3MWh(배터리 기준) 규모 ESS를 설치하고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세아시멘트는 LG CNS, LG화학과 손잡고 총 사업비 42억여원을 들여 설비를 구축했다. 지난해 3월부터 검토에 들어가 10월 건축물 시공을 시작으로 이번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ESS를 통해 연간 12억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SS는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에 방전할 수 있는 장치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멘트 공장에 ESS

를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 차익을 거둘 수 있다. ESS는 설치비용이 너무 비싼 탓에 설치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정부 지원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설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역시 ESS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설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세아시멘트 관계자는 “향후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ESS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검토 중”이라며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 원가절감은 물론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대용 기자 wee@

한전, 제대군인 대상 ‘배전 시공인력’ 양성

1개월간 교육 후 우량 협력업체 취업 알선

한전이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배전시공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국전력(사장직무대행 김시호)은 15일부터 1개월간 중기 제대 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배전 분야 전문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9월 체결한 한전-국방부 간 ‘제대군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배전전공 교육과정 운영 ▲교육비 지원 ▲교육이수자 배전전공 자격증 발급 ▲우량 협력업체 취업알선 등을 통해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전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교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국방부 주관으로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인원 15명을 선발했다.

교육은 배전 시공기준, 전기안전 및 전기기초이론 등 이론교육과 배전분야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되고, 교육장소는 대원전기교육원(충북 증평 소재)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수

한 배전 시공인력을 배출해 전기공사 현장의 부족한 전문인력을 채워주고, 제대 이후 젊은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 제대군인(5~10년 복무 후 제대 예정인 군인)은 지난해 2016년 기준 4000여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복무기간도 짧아 40대 미만이 99%를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다양한 공익형 사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창봉 ccb1970@

서부발전, 국립현충원 방문 사회적 책임 다짐

노사대표, 재생에너지3020 이행 등 각오 다져

한국서부발전(사장직무대행 정영철)은 12일 노사대표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정영철 사장직무대행과 유승재 노조위원장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에너지페라다임 전환기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놓는 한 해가 되길 다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기 위해 국립현충원을 찾아온 서부발전은 지난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태안 9·10호기를 종합준공하고, 파나 마복합 시운전, 케나 지열발전 O&M, 호주 태양광 사업 확보 등 아시아 지역 외 지역으로 해외사업 영역 확장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 정부경영평가에서 전력회사로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서부발전은 충남 태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는 공로 등을 인정받아 2017년 ‘공공기관일자리

콘테스트’에서 민간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11월 ‘KOWEPO Vision 2030’을 발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국내 지자체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 국가들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부의 사회적 가치 공유 및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형석 기자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사장직무대행(맨 앞줄 왼쪽 두 번째)과 유승재 노조위원장(맨 앞줄 오른쪽 두 번째) 등 노사 대표들이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예산 15억→38억으로 확대

백은규 산업부 장관, 미래 자동차 성장동력 필요성 강조

정부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신도 사업 중 하나인 전기·자율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백은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산·학·연 대표 유관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지정보통신진흥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업체를 대표해서 7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는 미래차 관련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

련 예산을 지난해 15억원에서 38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양대, 인하대, 충북대, 군산대 등 4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올해에는 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현대차 연구개발 및 원진과 별도의 간담회에서 현대차의 미래차 기술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대차는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38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모터·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는 2018년 2개 차종을 출시하고 이어 매년 1차종 이상을 출시해 2025년까지 총 14종을 양산할 계획이다.

케넥티비티, 5G 통신, 정밀지도 구축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IT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모빌아이(센서), 오로라(자율주행 기술), 시스코(케넥티비티)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세계 5위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미래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Since 1987

2017 제품 안전의 날 대통령 표창 단체상 수상

품격있는 디자인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방우 락커형 플러그 & 콘센트 매입(방우) 1구 콘센트

- IP54(방우) 테스트 합격제품
- 실내외 습기, 빗물지역에 효과적
- 전원선 조립이 용이함
- 방우형 콘센트 풀립방지 락장치
- 제품 디자인출원
- 책상, 벽면등의 인테리어 사용에 효과적
- 내열성이 우수하고, 충격에 강함
- 제품 디자인출원

생산 및 취급물품

고용량 멀티콘센트	현충용 멀티콘센트	일부이동 멀티콘센트
메인 개별 멀티콘센트	3Y 멀티콘센트	파워코드 & 전선

DONGANG 동양전자산업(주) www.dycord.com

본사: [주소] TEL: 0321-682-5252 FAX: 0321-675-6231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